"늦사랑? 우린 여전히 20대 사랑을 꿈꾼다"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로 21년 만에 호흡

조재현·배종옥

조 "중년에 이성 친구 솔직히 부러워"
"종옥 씨의 장점? 짱구라 머리가 좋아"

배 "연극 무대만의 냄새가 그리웠죠"
"난 아직도 스무살…사랑도 마찬가지"

무려 21년 만에 같이 하는 무대다. 30일까지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에서 주인공 정민과 연옥 역을 맡은 두 배우, 조재현(47)과 배종옥(48). 연말 대작 홍수 속에서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두 사람의 '명품 연기'에 힘입어 연일 관객석을 꽉 채우며 순항 중이다. 어느덧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무대에서 이십대 시절의 열정을 보여주는 두 사람을 12월의 '목요일'에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만났다.

●연일 매진…조재현 "가족 표도 못 구해"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무대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둘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다른 소품은 전혀 없다. 조재현과 배종옥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엄청난 양의 대사를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탁구의 격렬한 랠리처럼 빠르게 주고받는 대사 속에서 조재현은 능청스런 연기로 관객을 쥐락펴락했고, 배종옥은 이지적인 외면에 아픈 속내를 숨긴 싱글맘의 심리를 특유의 톡톡 튀는 '배종옥표' 연기로 정교하게 그렸다.

-요즘 두 사람의 작품이 공연계의 화제다. 티켓을 못구해 발을 구르는 관객도 많다.

조재현(이하 조): "그런가. 사실 나도 자리 구하기 쉽지 않다. 가족들한테 지금은 표가 없으니 나중에 보라고 했다."

배종옥(이하 배):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 기분이 좋다."

-이 작품의 주제는 50대의 '사랑과 우정'이다. 과연 50대의 사랑과 20대의 사랑은 다른가.

배: "'다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오히려 이상하다. 내가 늘 나인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내가 스무 살이라고 착각하며 산다."

조: "소중함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 같다."

-극중 정민과 연옥은 한때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친구사이다. 중년에 이런 이성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조: "이성친구라 … 솔직히 부럽지 않나. 양 기자는 안 그런가. (기자: 난 아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본인이 솔직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솔직한 얘기를 끄집어내려 하면 되겠나(웃음)."

배: "왜, 기자를 괴롭혀…(웃음)"

●그리움과 약속은 나를 무대에 서게 만드는 원동력

두 사람은 1991년 곽지균 감독의 영화 '젊은 날의 초상'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묘하게도 21년 동안 한 번도 같이 작품을 한 적이 없다. 조재현에 따르면 '젊은 날의 초상'에서도 함께 등장한 장면이 없었다. 사실상 이번 작품이 두 사람의 첫 공동작업이다.

-한 길을 걷는 동료이자 배우로서 서로에 대한 매력을 말한다면.

조: "닭살스럽게 진짜…. 처음으로 같이 하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하다. 종옥씨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준비를 많이 한다. 난 그렇지 않다. 게으른 배우다."

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섬세하다. '괜히 조재현이 아니구나' 싶다. 또 이번에 함께 일하며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조: "한 가지 더 있다. 종옥씨는 머리가 굉장히 좋다. 대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출가의 의도를 정확히 잡아낸다. 짱구라서 그런가.(웃음)

-평소 '마음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공부인가.

배: "7~8년 정도 지인들과 함께 마음공부를 하고 있다. 마음공부는 '지금 깨어있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사실 무대에서 대사를 안 할 때 온갖 잡생각이 난다. 그럴 때 딱 호흡을 하며 '무대에 있자'하고 마음을 잡는다."

조: "난 산에서 마음을 닦는다. 하지만 배우가 산에 자주 가도 좋지 않다.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모든 걸 용서하고 수용하려 한다. 배우는 쌈닭 기질도 있어야 한다."

-왜 연극 무대를 사랑하는가.

배: "작년에 강신일 선배가 출연한 '레드'라는 작품을 봤다. 끝나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무대 뒤에서 쿰쿰한 곰팡이내가 났다. 새삼 그 냄새가 그립게 느껴졌다. 이런 그리움이 끊임없이 무대에 서고 싶게 만드는 것 같다."

조: "후각이 발달하셨군(웃음). 데뷔할 때부터 나 자신과 약속을 했다. 유명해지든 아니든 연극을 하겠다고. 2000년 한창 바쁠 때도 '에쿠우스'를 했다."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질과 인기로 배우가 된다는 개념을 부숴버리고 싶다"라고 한 말이 화제가 됐는데.

배: "내 이야기다. 사실이다."

조: "난 주접만 떨고, 종옥씨는 몇 마디 안 했는데 올바른 말을 했다고 기사가 많이 났다(웃음)."

배: "다들 말로만 '선배님 존경해요. 저도 연기 잘 하고 싶어요'하지만 정작 방법을 가르쳐주면 안 한다. 내 방식은 늦어도 30대 초에는 트레이닝을 하고 무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그 나이에 복식호흡, 발성 등을 무용하는 친구들이 쓰는 벨트를 두르고 욕 먹어가며 배웠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

1991년 이후 21년 만에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조재현과 배종옥. 두 사람은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에서 깊은 '연기 내공'에 걸맞는 화려한 연기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사진제공 | 예술의전당

옥수수수염차, 세계가 마신다

광동제약, 대만 100만병 수출 등 해외서도 인기

광동제약이 2006년 7월에 첫선을 보인 'V라인 광동 옥수수수염차'(사진)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7월 광동 옥수수차 100만병을 대만에 수출한 광동제약의 관계자는 "중화권 스타 저우제룬의 여자친구로 유명한 모델 쿤링이 제품 행사장에서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소개해 화제가 됐다. 당시 대만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40여 개 매체에서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취재했으며, TV 쇼프로그램에도 방송되는 등 현지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대만 외에도 일본, 중국, 미국 등에 옥수수수염차를 수출하고 있다. 2011년에는 미국의 뉴스전문채널 CNN이 운영하는 CNNgo 사이트가 '한국을 대표하는 음료 20선'의 하나로 옥수수수염차를 선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음료시장에서는 인기제품이라고 해도 3~4년의 라이프사이클을 거친 이후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옥수수수염차처럼 국내외를 넘나들며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옥수수수염차의 인기비결에 대해서는 탄산음료와 같은 자극적인 맛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로 소비자의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분석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

마사회, 내년부터 '전 직원 연봉제 도입' 노사 합의

한국마사회는 2013년부터 전 직원 연봉제를 도입한다. 마사회는 2001년부터 팀장 이상 간부직만이 연봉제를 시행했으나 최근 노사 단체협상에서 연봉제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장태평 마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j2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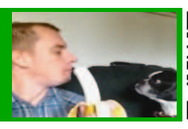
인기클릭 베스트 3

자료: 네이버

연예	채정안, 홍콩 파파라치컷 "알아본 게 신기해"
	'복서' 이시영 "너무 아쉽다"…태극마크 도전 계속
	'학교 2013'의 무서운 일진, 곽정욱의 재발견
스포츠	에이전트 전승환 씨가 밝히는 류현진 다저스 입단의 비밀
	박지성 뛰는 QPR 선수단 내홍 표출
	KBO 이사회, 10구단 창단 만장일치로 승인
사회	억대 연봉 스타강사?…월 140만원 '폭탄강사'
	가정도 학교도 버린 10대, 결국 전과9범…
	불법입양에 휘말린 한 여아의 불안한 앞날
경제	설마 했던 '물 민영화'…이미 시작됐다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스마트폰 열풍에 직격탄 맞은 기업들
생활문화	김연아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본 그녀의 심리 상태
	아슬아슬… 명동에 생긴 이상한 구름다리
	팀 버튼 "어린 시절 감성이 창작의 원천"

인기 동영상

나도 바나나 한입만



귀두확대 시술로 조루증 치료!!
주사로 귀두확대와 동시에 음경확대까지 가능!!
10분 시술로 시간이 길어진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로점)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강남점) 비뇨기과 전문의 최종근 원장

늘푸른 비뇨기과 최준호, 최종근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여 오랜 해외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성관계의 최대 적은 조루증이며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 시키는 귀두확대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귀두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으나 최준호, 최종근 원장은 귀두의 점막상피 세포층 아래에 2-3mm의 고유 점막층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부위에 히알루산인 "쥬비덤"을 주사기로 주입하면 귀두가 확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수술이 아닌 주사로 간단하게 "쥬비덤"이라는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수술전보다 약 40%정도의 확대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나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00823-중-19232호
www.egclinic.co.kr

▶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 ▶ 시술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
▶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 ▶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

늘푸른비뇨기과의원 종로점 02) 2272-5588, 강남점 02) 3469-19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21121-중-35576호
ManClinic 맨비뇨기과의원 맨남성의원
진료내용 남성의학클리닉
조루 / 발기부전 (원터치약물주입요법/봉삽입술) / 귀두/음경확대
대표전화 1577-7574
레이저포경수술 / 성병종합검진
길이연장 / 바세린제거술
음경만곡증 / 정관수술

강남신사역	02-592-2220	일 산	031-932-7933
신사역 5번출구 K타워 5층 맨남성의원		백석역 1번출구 맨비뇨기과의원	
노 원	02-935-8777	인 천	032-439-0007
노원역 8번출구 맨남성의원		인천터미널역 2번출구 신세계백화점앞 맨남성의원	
신도림역	02-3439-7582	부 천 역	032-657-0008
신도림역 1번출구 맨남성의원		부천역 대성병원앞 맨비뇨기과의원	
천 호 역	02-477-3477	안양 평촌	031-421-7511
천호역8번출구 브라운스톤천호 맨남성의원		인덕원역 4번출구(롯데리아건물 4층) 맨비뇨기과의원	
		수 원 역	031-255-7582
		수원역 2,3번 출구 맨남성의원	
		안 산	031-413-3555
		고잔동 20010아울렛 뒤 맨남성의원	
		천안 아산	041-563-0808
		천안터미널 사거리 맨남성의원	
		대 전	042-484-7373
		갤러리아타임월드 맞은편 맨비뇨기과의원	
		광주광역시	062-351-7582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맨남성의원	
		여수 순천	061-721-2555
		조례동 조례삼거리 맨비뇨기과의원	
		대 구	053-743-0075
		대구MBC 건너편 맨비뇨기과의원	
		포항 경주	054-231-7001
		상원동 스타타워상가 302호 맨남성의원	
		울 산	052-227-7332
		공업탐로타리 우리은행5층 맨비뇨기과의원	
		부산서면역	051-803-7533
		서면역 1번출구 (구)천우장 4층 맨남성의원	
		창원 마산	055-256-0303
		마산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맨남성의원	

www.manclinic.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20926-중-32390
트루맨 남성의원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팽창형/굴곡형
원터치 약물주입요법
✓ 귀두/음경확대 ✓ 조루/길이
✓ 바세린/만곡증 ✓ 남성지방흡입 (복부/여성형 유방)
✓ 포경/정관

아간 공휴일 수술가능 / 풍부한 수술경험 / 전 직원 남성만 구성 / 신뢰할 수 있는 결과 / 흉터 거의 없는 수술 / 합리적인 비용 / 당일 샤워 및 일상생활 가능

남성수술

왕십리점 02-2297-9616
서울 성동구 도선동 46 금영빌딩 2층
(2호선/5호선 왕십리역 1번출구)
강남점 02-557-55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2 삼영빌딩 3층
(2호선 선릉역 10번출구)
명동점 02-318-7571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1-2번지 영창빌딩 5층
(4호선 명동역 3번출구)
부천점 032-323-8575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5-9 시그마타워 4층
(1호선 송내역 2번출구)
분당점 031-704-75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0-6번지 메트로빌딩 7층
(분당선 야탑역 1번출구)
부산점 051-817-8526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9 SS메디컬빌딩 2층
(서면역 9번출구)
광주점 062-369-7532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24 무등산타워 3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trueman75.co.kr
트루맨
대표번호 1577-5095